

2026 InDePTh  
실전 모의평가  
1회차 정답지 및 총평

한 대산 영어 연구소  
대한민국의  
영어 교육을 밝힙니다.  
산이 변하고 강이 변해도  
언제나 그대들을 위해

# [정답]

1. ⑤
2. ①
3. ④
4. ③
5. ②
6. ③
7. ④
8. ③
9. ④
10. ②
11. ⑤
12. ①
13. ⑤
14. ①
15. ①
16. ②
17. ③
18. ③
19. ①
20. ③
21. ⑤
22. ③
23. ②
24. ②
25. ④
26. ①
27. ④
28. ③
29. ②
30. ③
31. ④
32. ①
33. ④
34. ⑤
35. ④
36. ③
37. ①
38. ⑤
39. ③
40. ①
41. ⑤
42. ③
43. ③
44. ⑤
45. ③

# [총평]

안녕하십니까. 한대산 영어 연구소 팀장, ‘한대산 영어’입니다. 총평을 시작하기에 앞서 간략히 현재 수능 영어의 기초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수능 영어는 2024학년도 9월 모의평가 이후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지문이 잘 읽히고 선지 또한 고민 없이 선택하였으나 틀려버리는, 일명 ‘의문사’ 트렌드가 바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수능 영어 학습 과정의 주안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에 이 기초를 잘 반영한 모의고사를 저희 ‘한대산 영어 연구소’가 만들어서 배포하였습니다.

해당 모의고사의 난이도는 1등급 비율 기준 2025학년도 6월 모의평가와 비슷하거나 살짝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출제한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영어 과목에 대한 경각심 형성
- 2) 다각적인 접근에 대한 필요성 자각
- 3) 고난도 영어 모의고사 갈망 해소

문항 출제의 기준과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지문의 메시지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암시적으로 드러날 것
- 2) 문장의 구조가 복잡하되 문장의 주요 포인트가 충분히 납득될 수 있도록 할 것
- 3) 각 선지가 뜻하는 영역을 미묘하게 다르도록, 치밀하게 배치할 것
- 4) 하나의 정보만을 보고 답을 도출할 수 없도록 할 것
- 5) 모의고사를 다시 볼 때마다 배울 점이 계속 생기도록 할 것

아래는 각 문항의 상대적인 어려움을 수치로 나타낸 것입니다.

18번: 2/5  
19번: 1/5  
20번: 2/5  
21번: 4/5  
22번: 3/5  
23번: 5/5  
24번: 3.5/5  
25번: 3/5  
26번: 2/5  
27번: 1/5  
28번: 1/5  
29번: 2/5  
30번: 3/5  
31번: 4/5  
32번: 4/5  
33번: 5/5  
34번: 5/5  
35번: 2/5  
36번: 4/5  
37번: 3/5  
38번: 3/5  
39번: 4/5  
40번: 3/5  
41번: 3.5/5  
42번: 4/5  
43번: 2/5  
44번: 2/5  
45번: 2/5

가장 어려웠던 문항 Top 5를 어려운 순으로 배열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Top 1. 23번

'B'와 'C'가 서로 가지는 역학과 'Situation'과 'Analysis'가 가지는 역학을 이해하고 '맥락'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추론해야 함. 서로 상호작용하는 요소가 많은 지문이고 도출되는 결론이 직관적으로 보이지 않음.

## Top 2. 33번, 34번

33번은 'optimal'의 용어가 어떻게 정의되는지에 따라 각기 다른 결과를 도출하기에 복잡하게 구성된 정보를 정리하는 능력이 필요했음. 34번은 'trend'가 어떻게 '변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풀었어야 함.

## Top 3. 31번

글 속 '논리적 장치'와 '수사적 장치' 사이의 관계와 '기계'와 '알고리즘' 사이의 관계를 적절히 엮어 생각할 수 있었어야 함.

## Top 4. 21번

'Stress'와 'Performance'가 서로 가지는 상호 관계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글을 읽었어야 함.

각 문항들은 지문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이해를 요구하며, 뉘앙스를 파악하는 것 또한 중요했습니다.

해당 'InDePTh' 실전 모의고사는 말 그대로 심층적으로 글을 다루는 능력을 평가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고난도의 어휘보다 글의 맥락과 선지에서 유도되는 난이도에 집중하였으므로 순수 독해력과 지문 이해도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한대산 영어 연구원 (경): 순서의 경우 단순히 접속사와 대명사에서 얻을 수 있는 단서를 넘어 서론, 본론, 결론의 논리 구조를 탄탄하게 구획하였습니다. 글이 장황하게 느껴지려 하다가도 결국 제시되었던 논지와 대상들이 요약되어 마무리되므로 정답의 근거를 확인하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삽입의 경우 크게 높은 수준의 난이도를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글 자체를 바르게 독해하지 않는다면 오답이 발생할 수 있게끔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순서 추론 유형의 지문이 명확한 지시어 없이도 풀이가 가능하도록 하는 평가원의 방식에 착안하여 독해력 자체에 초점을 맞추도록 구성했습니다.

장문독해(1)의 특징은 글의 전개와 비례하여 맥락이 넓게 뻗어나간다는 점입니다. 한 가지 주제를 심층적으로 파고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뿌리에서 비롯된 맥락이 다른 맥락으로 연결되어 최종적으로 지문이 완결되는 형식을 취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핵심 포인트를 잡아내는 기술적인 방법보다는 글의 흐름 자체를 파악하여 풀이하신다는 가정하에 완성도 있는 지문이 됩니다.

특히 42번 문제는 단락적인 흐름 파악보다는 글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여 풀이하셔야 한다는 점에서 매력적입니다.

한대산 영어 연구원 (동): 영어를 정말 잘하는 사람이라도 문장을 읽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수 있고, 해석이 된다고 해도 핵심을 파악하려면 정보 정리와 인지적 부담 조절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특히 선지를 가려내는 사고 과정이 흥미로웠고 정답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깊은 고민을 하게 되면서 큰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항상 문제를 푸는 입장이었다가 출제자의 역할을 해보니 감회가 새로워고, 문제를 제작하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퍼즐을 푸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난이도와 상관없이 지문 자체의 내용이 재미있고 깊이 있는 사고를 하게 되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총평을 마치며)

해당 모의고사는 1회차임에도, 적잖이 어려운 난이도를 가진 모의고사였습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올바른 문제 풀이의 방향성은 단순히 문제를 풀려고 글을 읽는 것이 아닌 글을 올바르게 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문제를 푸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글을 좀 더 깊게 보고 다루며 이해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였던 셈이지요.

고로 해당 모의고사에서는 얇게 박서는 풀 수 없는 문항들을 적절히 배치함에 따라 푸시는 수험생분들께서 새로운 결의 문제들을 잘 보고 그 속에 있는 사고 과정을 배울 수 있으시게끔 의도하였습니다.

저희 한대산 영어 연구소는

언제나 여러분의

영어 Learning Mate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후기]

(브라이언) (인재원 침산 입시관 원장)

우리가 왜 과도한 감 기반의 독해를

"지양"해야하는지 지문과 선지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문의 내용을 읽었다는 이유만으로

선지는 쉽게 답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디.

특히 고난이도 하프라인이 있는 학생들이 꼭 겪어봐야 할 형태의 모의고사입니다.

시간 배분 및 멘탈 관리 능력을 함양하는게 필수니까요.

**N수의 증가로 이런 문항들이 실수능에 제시된다면 1등급 비는 3%대로 예측됩니다.**

사실보다 더 사실스러운 이번 모의고사를 접하게 되어 흥미롭습니다.

독이 아닌 "해"를, 감이 아닌 "각"을 강조하는 이번 In depth 1차 모의고사는 6평 전에 고3학생들이 꼭 풀어보고 특히 오답에 시간을 많이 쓰면 좋겠습니다.

(\*경\* 한대산 영어 연구원)

이번 InDePTh 모의고사 **1회차의 두드러지는 특징은 난이도**라고 보여줍니다. 물론 몇몇 지문에서 고난도 어휘가 등장하긴 하지만, 주된 이유는 맥락 파악에 있습니다. 순수 영어 독해력과 문해력을 바탕으로 지문 전체의 맥락을 파악하고 주도적으로 사고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난이도가 크게 올라갔습니다. 분명히 문장 하나하나는 해석이 가능했지만 선지를 쉽게 선택하지 못하거나 글의 주제 파악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었겠습니다.

그러나 InDePTh 모의고사는 수능 영어 풀이의 기술적인 방법보다는 영어 실력 자체 향상을 목표로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영어력'을 키우는 데 있어 **기존 사실 모의고사 대비 독특한 강점**을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영어 지문에 본질적인 접근을 통한 실력 향상을 기대하시는 분들이라면 많은 도움을 얻어갈 것이라 감히 장담드립니다.

(김민성) (서울대 소비자아동학부 아동가족학)

이 모의고사는 기출과는 다른 결의 난도를 가지고 있는 모의고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어렵다던 2025 6모를 현장에서 풀 때보다 선지 자체는 조금 더 모호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억지스러운 논리로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모호한 선지를 구분해낼 수 있는, 그런 논리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풀이 추천 대상 학생들의 등급대는 기존 교육청, 평가원 모의고사 풀이 기준 1-3 등급대 학생들입니다. 1등급대 학생들은 시간을 엄수하여 풀고 2,3등급대의 학생들은 시간에 쫓기기보다는 문제를 찬찬히 풀어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사견을 남겨보자면 사실 모의고사를 푸는 의의는 해당 모의고사의 논리 전개 방식이나 선지를 소거하는 방식을 익히는 것이 아니라 스펙트럼을 넓히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평가원이라는 가장 중요한 스펙트럼을 조금 더 확장된 범위로 넓혀가는 과정인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InDePTh 모의고사 1회차는 평가원과 근접한 스타일의 모의고사라기 보다는 스펙트럼의 확장폭을 가장 크게 넓힐 수 있는 모의고사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기출과는 약간 결이 다른 논리 전개를 요구하지만 혹시 모르는 평가원 출제 스타일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풀어보기에는 좋은 모의고사입니다.

**한줄평: 지금껏 풀어본 영어 실모 및 모의고사 중 체감상 가장 어려웠다.**

(익명 B)

작년 6월 모의평가 느낌이 많이 났던 시험지이다. 난이도는 **상이고 실제 수능에 출제될 경우 1등급 비율이 4% 미만으로 변별력이 높은 퀄리티 좋은 시험지인 거 같다.** 지문이 읽히고 이해가 되더라도 선지에서 답이 헛갈리고 고르더라도 틀리는 문제가 많고 의문사도 많이 당하는 그 느낌을 잘 구현한 것 같다.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문맥의 흐름이나 대충 '이런 뜻이지 않을까?'하는 추론으로 끼워 맞추기식 읽기를 하는 애매한(?) 1, 2등급 학생들이 많이 틀릴 것 같다. 심지어 지문과 선지에서 고난도 단어들 나와서 제대로 읽지 않으면 의문사나 오답이 많이 나올 것 같다. 문제 난이도 면에서 순서 삽입(36~39)은 평이하게 출제된 반면 주제, 요지 그리고 빈칸 추론(21~24, 31~34)이 어렵게 출제된 거 같다. 실제로 시간 재고 풀이할 때 순서 삽입은 답이 잘 보여서 빨리 지나갔고 주제, 요지, 빈칸 추론은 헛갈려서 한참을 고민해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다. **그리고 그냥 전체적으로 쉽게 주는 문제가 없는 거 같다.**

(하예은 / 의대)

2025 6모를 상기시키는 불쾌한 느낌의 지문(욕 아님니다)과, 2025 수능 24번 등과 유사한 선지싸움이 눈에 띈다. 다만 지문의 내용을 조금 더 원론적인(원래의 맥락에서) 이해하도록 정답 선지가 구성되어 있어 지문에 비해서도 난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단 21-24가 어렵고 순서삽입이 상대적으로 쉽다 보니 각자의 약점 유형에 따라 체감 난도가 달라진다. 내가 측정한 1,2등급 합산 비율은 4-6퍼이다.)

이 실모를 통해 다양한 지문 구성 방식을 익히는 것보다는 선지를 바라보는 시각을 키우는 것이 학습을 위해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진다. 대표적으로 21번은 야성을, 22번은 크로키를 높은 수준으로 구사한다. (별도의 글로 정리할 내용이다)

끝으로 모든 이로 하여금 한대산 영어 실모로부터 획득한 점수에 대해 실망을 가지지 않도록 응원을 전해주고 싶다.

(강서준/건양대 의대)

난도는 정말 높습니다. 나름 다양한 시험지를 접해보았는데 그 중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면 1등급 1프로 이하로 2506보다 낮을 거 같습니다. 따라서 점수를 보고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해당 시험지에서 얻을 건 문제 접근과 선지판단이지 점수가 아님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험지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21-24 하프라인입니다.

역대 최고난도라고 불리우는 2506 시험지보다 더 어려운 21-24라인을 맞볼 수 있을겁니다.. 주제 역시 생소한 주제로 이해하기 어렵고, 21번 같은 경우는 분류를, 22번 같은 경우는 예시를 활용하여 전반적인 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2506에서 경험했듯 하프라인(21-24)가 어려우면

시험 전체가 말리는 느낌을 느낄 수 있는데 해당 시험은 그 점을 잘 구현한 것 같습니다. 선지가 애매모호한 느낌을 받으실 수는 있지만 답지를 확인해보시면 “아! 그래서 이거구나”라고 납득이 될겁니다. 이러한 느낌이 주는 문제지들을 시중에서 찾아보기 어려운데 이 만들기 어려운 시험지를 무료로 배포하신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무료배포이지만 웬만한 사설모의고사 그 이상의 가치를 하는 문제지입니다. 어렵지만 도전해보세요! 화이팅~!

(익명)

2026학년도 InDePTh 실전 모의평가 1회차 문제지는 매우 탁월한 수준의 모의고사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문제의 구성과 난이도는 평가원 이상의 난이도와 구성을 가지고 있어 고난도 모의평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평가원의 현재 기조와 매우 부합하는 요소들이 충실히 반영되어 있어 현재의 기조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또한, 각 문제는 수능학습방법안내서에 부합하며 논리적인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데 있어 매우 효과적입니다.

둘째, 각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는 역학이 매우 치밀하고 또 난이도 있게 구성되어 있어 학생들이 평가원의 난해한 leet 언어이해 수준의 문제를 풀기 위한 InDePTh한 사고를 기르기에 아주 훌륭하다. 이의 난이도는 대략적으로 2010학년도 9월 모의평가에 준하거나 그 이상이라고 평가한다.

결론적으로, 2026학년도 InDePTh 실전 모의평가 1회차 문제지는 고난도 모의평가로서 매우 훌륭한 평가 도구임을 명백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가 무척이나 기대된다

(김우인/민사고 졸, 연세대 의대 재학)

우선 개인적으로 매우 어려웠습니다.

일단 보통 1~2등급 분들이 리스닝과 함께 푸는 18~24번에서 까다로운 것들이 있었고 풀고 나서도 찝찝했습니다. 실전이였다면 매우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평소애 이 부분을 대충 빠르게 푸셨던 분들은 경각심을 가지게 된 모의고사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문들도 전반적으로 문장이 길고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지금 천천히 다시 읽어도 어렵네요) 내용을 이해하고 푸는 방식을 선호하는 (저같은) 분들은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내용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뽑아낼 단어들을 확실하게 하고 그 관계성을 어떻게든 찾아내는 것이 수능 영어에서 중요한 스킬임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는 모의고사였습니다.

(임해찬/성균관대 반도체융합공학)

아래 내용은 모의고사에 관해 작성한 후기입니다.

InDePTh 모의고사를 단어 하나로 표현하자면, '생각'입니다. 생각없이 문제를 푸는 사람이야 적어도 공부를 하는 사람들 중에선 없을겁니다. InDePTh모의고사는 그 생각의 깊이를 요구합니다. 단순히 접속사 등의 근거뿐만 요구하는 것이 아닌, **더 깊은 사고**를 요구합니다.

아쉬운 점도 존재하긴 합니다. 26번의 경우, 소거법을 적용하면 추론을 하게끔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고, 또 여러 **문제의 난이도가 많이 높아** 문제를 푸는 학생들에게 피로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듭니다. 즉, 어려운 문제들이 너무 많아 쌓이는 피로가 전반적인 퍼포먼스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은 더 쉬운 문제들을 넣어 전체 난이도의 희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쉬운 점이 있는건 맞으나, 여전히 InDePTh는 수험생 시절 **1등급을 놓친 적 없는 제게도 신선하다**는 느낌을 줬습니다. 평가원이 어떤 신발을 신길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더 무거운 신발로 단련하면 충분히 잘 달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황현재)

이번 InDePTh 1회 모의고사의 경우 **매우 어려운 난이도**를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2506의 전례가 있기에 이러한 극난도 모의고사를 한번쯤 경험해보고, 자신이 어디서 실수하는지 파악해보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20~24, 29~34 파트가 상당히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평소 글을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지 않았을 경우 푸는데 상당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글이 전체적으로 억지스러운 논리를 가지고 있지 않고, 그러면서도 잘 읽히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번 시험을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또한 20~24, 29~34, 36~39의 문제들이 아니더라도 여차하면 실수할 여지가 있는 선지들로 구성되어있는등 끝까지 집중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암살당할 수 있는 만큼 본인이 영어를 너무 쉽게 보고 있는것은 아닌지 점검하기 좋은 시험지라고 생각합니다. 평소 너무 단어 대입/비교식으로 문제를 풀고 있는것은 아닌지, 문장을 길게 보고 맥락을 파악하는게 힘든것은 아닌지 판단하기 좋아보입니다. 또한 풀이 후에도 시험지 자체를 리뷰하면서 얻어가는게 많을것이라고 기대됩니다.

저는 20~24, 29~34가 뻑뻑하다고 느꼈고, 36~39는 평이하게 출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평소 평가원, 교육청에서 90초~중 성적을 받던 실력으로 80점대 중반 성적을 받았으니 본인의 점수가 낮다고 너무 자포자기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